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⑤ 붓다의 생애와 불화

▶ 한줄 요약
붓다의 생애는 불화로 제작됐고, 이를 불전도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팔상도로 알려졌다. 돈황 석굴에는 많은 설법도가 남아있는데 시기별로 도상 내 청중의 구성이 다르다.



붓다 설법 청중, 토착神서 보살로 변화

지난 회에는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즉, 전생을 그림으로 표현한 '녹왕본생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신 후를 소재로 하는 불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와 같은 붓다의 생애를 소재로 하는 불교미술은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경전은 붓다의 전생 즉, 본생담과 출생한 이후의 전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붓다의 생애를 묘사한 '불전도(佛傳圖)'는 우리나라에서는 '팔상도(八相圖)'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사찰의 팔상전(八相殿, 捌相殿)이나 영산전(靈山殿)에 많이 봉안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팔상도는 대개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다.

내용은 ①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동서남북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모습) ④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궁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설산에서 수행하는 모습) ⑥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중의 항복을 받는 모습) ⑦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는 모습) ⑧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모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돈황 벽화에 마야부인의 〈영몽수태(靈夢受胎)〉에서부터 붓다의 일생을 본생도처럼 연환화(連環畵, lianhuanhua) 형식으로 그린 것이 여러 점이 남아 있다. 이는 수대(隋代)부터 그려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불동 제102굴의 내용은 〈강생〉 〈태자학습〉 〈태자출가〉 〈태자삭발〉 〈산중고행〉 〈항마〉 〈니련선하 목욕〉 〈녹야원초전법륜〉 〈열반〉 등이다. 이 중에 〈설법〉 〈항마〉 〈열반〉의 3상(相)은 독립적으로 한 폭씩 그려진 것이 많으며, 인도 등지에서 많이 제작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기원전 1세기 파얼리 부도 난간에 새겨졌던 〈영몽수태도〉가 현재 켈커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방대한 붓다의 생애 전반에 관한 변상도를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싯달타 태자가 깨달은 후 즉, 붓다가 되신 후의 활동상을 묘사한 '설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249굴 설법도 벽화. 서위 시대에 조성됐다.



그림②. 초당시대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제57굴 남벽의 설법도.

서위시대 설법도 특징은

돈황 막고굴 제249굴 설법도는 돈황 벽화 예술의 대표작 중 하나로 북벽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 그림은 서위(西魏)시대에 그려졌다. 제249굴 북벽의 중층 불설법도 남북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불의 중앙에는 약 1m 사방의 소형 불설법도가 그려져 있다. 이 북벽의 설법도는, 오존도형식의 중존불입상으로 본존불의 좌우에는 각 2구의 보살이 있다.(그림①)

중앙에 위치한 입불(入佛)은 배형 광배를 지고 우견편단(右肩褊袒)의 가사를 입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치켜들고 왼손은 옷을 잡고 엄숙하게 서 있는 자세다. 양옆에는 각각 이신(二身)의 보살이 우견편단 가사를 두르고 있거나 치마를 반나체로 입고 있다. 보살의 옷자락과 천의 끝이 톱날문과 같이 되어, 이 복장은 북위 후기에서 서위 시대까지 이어진다. 육색은 담갈색으로 변색되었지만, 본래는 피부색이었다고 생각된다. 보살은 몸매가 날씬하고 지체가 유연하고 아주 온화·단정하며 여성스러워 보인다.

붓다의 상방에는 짐승 머리와 쌍봉(雙鳳)의 화개가 장식되어 있고, 옥패장식의 수술이 드리워져 있다. 화개의 양쪽에 떠있는 구름에는 네 명의 비천상이 날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한 쌍의 비천의 용모는 수려하고 늘씬하며, 큰 소매의 두루마기를 입고 소매를 휘둘러 다리를 구부리고 춤을 추는 자태가 경쾌하다. 그 아래 한 쌍의 비천은 상체는 반라(半裸)이고 어깨에 건(巾)을 걸치고 긴 치마를 입고 있으며, 연꽃봉오리를 손에 들거나 꽃잎을 뿌리는 모습을 하고 두 발은 뒤집힌 채 몸놀림이 분방하고 강건해 보인다.

불화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국(佛國)의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천룡팔부의 하나인 '건달바, 즉 비천일 것이다. 이 형상들은 날개가 돋아나 있지 않고 구름에 의지하지도 않은 채, 기다란 건(巾)을 휘날리면서 손을 들어 꽃을 뿌리거나 즐겁게 하늘 위를 노닐며 훨훨 날면서 춤을 추는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상상이 기탁되어 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보물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구도는 정토변상의 모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인물의 형상에 생동감 있으며, 옷과 장식 그리고 화개에는 중원과 서역의 두 가지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필법이 간결하고 색이 소박하며 장식성이 풍부하다.

부처님 생애를 도상화한 '불전도'
돈황에 연환화 형식 벽화 조성돼
서위代 서왕모 등 神들 청중으로
수당 이르러 보살·제자로 채워져

한편, 서위 제249굴에는 민속 전통의 신화(神話)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천정 가운데 연꽃(蓮花)무늬가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 양쪽에 아수라와 마니주(摩尼珠)가 그려져 있고, 남북 양쪽으로는 동왕공(東王公)과 서왕모(西王母)가 용거(龍車)와 봉거(鳳車)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수레 위에 무거운 덮개가 높이 달려 있고 수레 뒤에서 깃발이 휘날리는데, 양쪽에서는 절양번(節揚幡)을 쥔 방사(方士)가 길을 열고, 뒤쪽에서는 사람 머리의 용의 몸(人首龍神)인 개명(開明)이라는 신수(神獸)가 뒤따른다. 주작(朱雀)·현무(玄武)·청룡(靑龍)·백호(白虎)가 각각의 벽에 배치되어 있다. 비렴(飛廉)이 날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뇌공(雷公)이 팔을 휘둘러서 연이어 북을 울리니 천둥 번개가 일어나며, 우사(雨師)가 안개를 뿜어내어 비를 내린다. 이런 종류의 제재가 출현한 것은 불교 사상과 도가의 신선 사상이 벽화에 서로 결합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초기의 불교 예술이 민속화된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개황(開皇) 5년의 제305굴에는 제249굴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동왕공과 서왕모가 다시 한 번 동굴의 천정에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도하는 방사는 승려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두 종류의 제재의 진일보한 융합을 의미한다. 이후로는 수대(隨代) 동굴의 감변(龕邊)에 이런 식의 제재가 많이 출현하게 되는데, 화면의 크기는 갈수록 작아지며, 동왕공·서왕모와 함께 출현했던 바람·비·우레의 신들은 당나라 초에 이르러 벽화에서 사라졌다.

당나라 설법도 무엇이 변했나

당대의 설법도는 등장인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화가는 인물의 각기 다른 개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제57굴의 남쪽 벽의 설법도를 보면, 화면 중앙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제보살, 제자 등의 형상이 15~16명에 달하며, 중앙에는 연화좌 위에 아미타불은 결가부좌로 앉아있다. 아미타불의 양측에는 제자와 젊은 제자가 각각 그려져 있는데 늙은 제자는 손에 정병을 들고 젊은 제자는 발우를 들고 양측에서 시봉하고 있는데, 이는 아난과 가섭의 모습이다. 다시 외측을 보면 두 명의 큰 보살상이 있는데 특히 왼쪽의 협시보살은 가장 아름답게 그려졌다. 그 보살은 머리에 불관을 쓰고 상체는 반라이며 긴 스카프를 두르고, 몸에는 영락을 걸치고 있다. 한 손에는 가벼운 지물을 받치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공양물을 들고 있다. 이 보살들은 아름다운 몸매로 몸은 약간 'S' 형 곡선이며 눈은 아래를 보고 있으면서 사색하는 모습이며 섬세한 피부에 고귀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그림②)

수·당 시대에는 불상화가 새롭게 발전하였는데, 바로 대형의 보살상이 많이 출현하였다. 가장 큰 보살상은 높이가 10m 이상에 달하고, 가장 긴 보살 행렬(行列)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심지어 석굴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정토(淨土) 사상이 유행했기 때문에 특히 관음보살이 불교도들에게 숭배되었다. 당나라 초기에는 고승(高僧) 법림(法琳)은 당 태종(太宗)에게 관음의 영이(靈異)함을 대대적으로 선양하였다. 또한 당 선종(宣宗)은 모든 사원들에 관음상을 그리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초성당(初盛唐) 이래로 대세지(大勢至)와 관세음(觀世音) 등의 형상을 동굴에 그리고 그들의 소조를 만드는 일이 유행하였다.

이 설법도는 직접 진흙 벽 위에 그린 것으로 십대보살과 두 명의 역사상이 나타나 이전 시대의 설법도와 다른 면을 보인다. 인물 조형은 정확하고 아름다우며 색채는 화려한데, 이는 당 전기 벽화예술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진흙 벽 위에 직접 벽화를 제작하는 것은 당 전기에 니타난 새로운 기술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322굴 남벽 설법도에서도 나타난다. 화면에는 제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보살이라는 점과 불(佛)의 머리에 높게 솟은 소라와 같은 나발(螺髮)이 보살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보살의 신체 조형은 제57굴 보살의 모습처럼 요염함이 더해져 'S' 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초당대 설법도의 불보살상의 인체비례는 북위(北魏)와 서위(西魏)시대에 비해 더욱 적절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였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입회비 20만원), 무료특강 (2년코스)
개 강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 다루는 법(목탁·요령·북·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안성 봉운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일죽면 고은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매주 목요일 교육 시간표		
오 전		
9시	천도재	법원스님
10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 후		
1시	교양과목 : 태평소	대산스님
2시	북 타법	진효스님

※ 수업은 시간 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행사 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일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2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